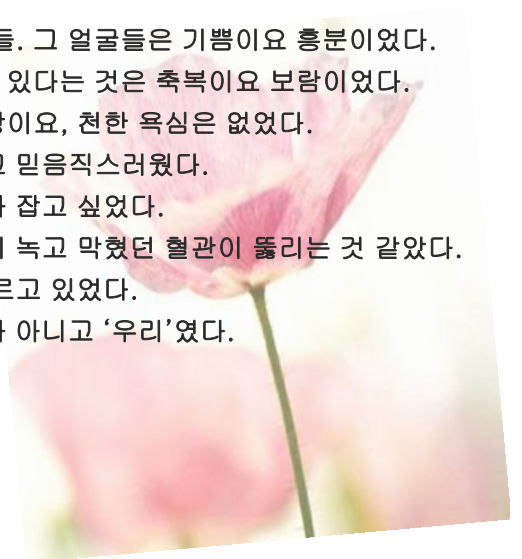


CAPEind Magazine

케이프 소식지
2011.04



그때 그 얼굴들.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그 순간 살아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열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다 '나'가 아니고 '우리'였다.



Cape 핫 이슈!!

제27기 정기주주총회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 회사 대강당에서 제 2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의장을 맡은 김막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전방산업인 조선업과 해운 업황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매출이 하락하였으나 작년 말부터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적 개선을 통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부의안건 심의 과정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개정 및 이사 선임의 건이 통과 되었다.

정관 개정 내용은 사업 목적에 금속원료 재생업을 추가하여, 주물공장 가동과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정동근 이사를 사내 상임이사로, 김종관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총 이사 원수를 4명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여 회사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부쩍 높아진 관심을 나타냈다.

사내 외곽 청소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일 관리, 기획, 전산, QA, IR, 회계, 영업, 구매, 기술, 생산관리 팀 등 사무실 전 직원들이 모여 봄 맞이 사내 외곽 청소를 실시하였다.

경비실을 시작으로 2팀으로 나누어 사무실 건물 주변, 가공 공장, 주물 공장, 학교동을 거쳐 기숙사와 식당까지 둘러보며 그 동안 쌓여있던 쓰레기를 구석구석 치웠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로 만개한 벚꽃과 동백 꽃을 보며 향기로운 봄 내음과 함께한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건강검진 실시



우리 회사는 4월 22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장소는 구내식당으로 약 8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양지병원의 의료진이 나와 검진을 한다.

키와 몸무게 측정을 시작으로 시력, 혈압체크 등 기본적인 검사와 당뇨나 각종 질환의 유무를 살피기 위한 피 검사와 소변검사 등이 실시 된다.

건강검진의 실시로 현재의 건강상태 확인과 함께 그 동안 소홀했던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Cape 핫 이슈!!

봄 맞이 족구 대회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4일 월요일부터 5월 1일 일요일 결승전까지 약 한 달간의 봄 맞이 족구 대회를 실시한다.

케이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총 16개 조로 나뉘며 4인제 경기로 15점에 3세트, 듀스시 2점을 앞선 팀이 승리하는 규칙으로 점심 시간을 이용해 생산1팀 관리동 앞 족구장에서 경기가 이루어진다.

총 상금 금액은 2백 만원으로 우승팀에게는 백 만원, 2등은 오십 만원, 3등과 4등 팀에는 각각 삼십 만원과 이십 만원이 주어지게 된다.

4월 25일 현재 생산관리팀인 4조가 결승전에 먼저 도달하여 상대편을 기다리고 있으며 생산2팀인 신중렬 부장이 이끄는 7조가 패자결승인 3,4위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26일과 28일에 생산1반의 송주열 반장이 이끄는 10조, 생산2팀의 11조 경기 그리고 권순호 팀장이 이끄는 13조와 김은조 조장이 이끄는 15조의 경기가 있을 예정이다.

각각의 우승팀은 5월 1일 일요일에 4조와의 결승전과 7조와의 패자결승을 치르게 되며 장소는 명곡공원으로 이날은 경기 뿐 아니라 점심식사, 경기 후 회식까지 있을 예정이다.

상금이 큰 만큼 직원 모두들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열심히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

과연 백 만원의 주인공은 어느 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전 교육 실시

지난 4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구내 식당에서 생산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담당자인 문대일 대리가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과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그리고 '요통예방 스트레칭', '크레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에 관한 동영상 시청으로 보호구 착용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요통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시청으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 또한 방독면 착용법을 실제로 보여주며 위급 시 개인 스스로가 직접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이날의 교육으로 모두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더 일깨워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다문화 가족 케이프!!



얼마 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 이어 또 다른 국가, 네팔 가족이 생겼다.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 식습관 등 모든 것이 낯설 네팔인을 위해 통역사를 모셔와 안전 교육뿐 아니라 케이프에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모두들 네팔에서 고등교육까지 이수한 만큼 고향에서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낯선 곳에서 일을 하기로 한 계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외국에서 여러 기술을 배워와 배운 것을 토대로 고향에서 이용하며 살려고 왔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려고 온 것도 큰 목표죠~ㅋ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술은 농촌에서 소랑 돼지 키우는 법 같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ㅋ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은 네팔에서는 잘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도 열심히 모아서 가정도 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라고 응답 했으며,

한국에 온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텐데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힘들어요, 배가 고프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일을 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낯설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적응해 갈 것이라 믿고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다 보면 이런 답답함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되구요."라 답했다.



우리 케이프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로는 "네팔에서는 보기 힘든 처음 보는 큰 장비들이 아직은 낯설고 조금은 겁이 나서 일을 할 때 조금은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마음만은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낯설어 하고 조금은 어색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케이프의 완전한 일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보아요~~^^* "라고 밝은 얼굴로 말했다.

회사 말고는 길을 몰라 주말에도 기숙사에서만 지내야 하는 네팔인을 위해 간단한 식음료를 살 수 있는 마트와 음식점의 위치,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규칙과 알아 두어야 할 점들도 통역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다.

아직은 케이프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적응이 되지 않아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으나 그 동안 말 할 곳이 없어서 담아 두었던 말들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나서인지 한결 마음이 편해진 얼굴들이었다.

야간조라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해 피곤 할 텐데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해 준 네팔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고 싶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대한다면 이들에게 한국과 케이프가 좀더 친근하게 다가 오지 않을까 싶다



목소리도 경쟁력이다!!

중저음의 신사같은 목소리, 꾀꼬리 같이 맑고 고운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반면에 탁 가라앉은 허스키한 목소리, 가느다랗고 톤이 높은 목소리 때문에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목소리는 한 사람의 이미지뿐 아니라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무엇보다 확신에 차 있는, 자신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매일 10분만 투자하여 다음과 같이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훈련법 4단계를 익혀보자



1단계- 건강하고 윤택 있는 목소리를 위한 복식호흡

목소리 훈련에 들어가기 전 먼저 신체를 단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몸이 건강해야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자세가 구부정하면 가슴으로 숨을 쉬며 말하게 되어 목이 쉬 상하게 된다. 가슴으로 하던 호흡을 배로 하는 호흡으로 바꾸면 건강을 얻을 뿐 아니라 목소리가 몸을 울려 손쉽게 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복식 호흡은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뒤 아랫배로 공기를 내려 보냈다가 입으로 “프~” 하면서 내쉬면 된다. 이때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목이 금방 건조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복식 호흡을 하면 목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배에만 힘을 주므로 성대를 보호할 수 있고, 힘 있고 윤택이 흐르는 안정된 음성을 만들 수 있다.

2단계- 힘 있고 풍성한 목소리를 내는 발성법

평상시 말을 할 때 목의 아치를 약간 넓힌 상태에서 말하면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보다 명료한 음이 나온다. 소리를 입안에 머금지 말고 배를 수축시켜 호흡을 내뿜으면서 “하 하 하 하” 큰 소리로 스타카토 발성을 해보면 소리가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소리가 입 밖으로 시원하게 무지개처럼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가도록 하는 게 요령이다.

3단계- 부드럽게 감싸는 목소리를 내는 마스크 공명법

마스크 공명법은 발성법을 좀 더 세분한 것으로 좀 더 부드럽고 풍부하면서도 개성 있는 음색을 얻는 요령이다. 입 주변 마스크 부분으로 소리를 모아 “음~~~~~” 하며 허밍을 하듯 소리를 내면서 소리가 울리는지를 느껴본다. 손으로 코와 입 주변을 만졌을 때 부드럽게 울리는 진동이 느껴질 것이다.

복식호흡으로 공기를 조절하면서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말의 속도에도 여유가 생긴다.

4단계- 목소리의 지루함을 날려버리는 강조법

상대를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목소리 톤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좋다. 갑자기 톤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중은 집중을 한다.

속도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거나 모음을 길게 늘이면 상대가 집중하게 된다. 이처럼 보다 다양한 억양을 만들어 내고 말에 운율과 리듬감을 불어넣으면 청중의 주의를 끌 수 있으며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문필권: 문
권정은: 권

대형장비계의 장인, 문필권 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권: 먼저 부장님 하시는 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 기계 장비의 유지, 보수를 맡고 있어요. 자세히 말하자면 기계장비가 노후 되었거나 관리를 잘 못 했을 경우 고장이 나는데 그때 원인을 파악하여 고치는 일을 하고 있죠~

권: 공무팀에서 일 하신지 오래 되셨는데 그 동안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문: 처음 케이프에 입사해서 7년간 생산관리를 맡았었고 11년째 공무를 맡고 있는데 처음 공무팀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원인 파악에서부터 수리 하는데 까지 주야 쉬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권: 그런 날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형장비계의 달인 문필권 부장님이 있으신거군요 ㅎㅎ 힘든 만큼 보람된 일도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연양공장 에서 양산으로 이전할 때 다른 업체의 도움 없이 공무팀 스스로 직접 기계들을 옮긴 것이죠, 한 달에 두 세대씩 옮기면서 거진 1년이 걸렸는데,,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공무팀이 이렇게 큰 일도 척척 해 내는 것이 팀워크가 좋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공무팀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있던데~~

문: 우리팀이야 케이프에서 최고로 팀워크 좋고 분위기 좋지~~^^ 기계가공, 품질, 기계, 전기, 유압,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조합될 때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팀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며 당연히 팀원간의 협력과 단합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를 많이 다루어본 경험도 있어야 하고 전체를 볼 줄도 알아야 하는 한마디로 종합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권: 무에서 유를 창조 할 수 있는 저력이 공무팀이 종합예술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군요 ^^ 주말에는 따로 취미 생활로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문: 족구 동호회를 들어서 매주 족구를 하고 있어요~ 아쉽게 족구 대회에서 패하기는 했지만,,ㅎㅎㅎ 컨디션 저조가 패한 원인 이었다고 해두죠~~^^;;

권: 그래도 부장님의 킥은 멋있었습니다 ㅎㅎㅎ 우리 케이프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문: 워든 잘해야해~~~!! 모든 문제에는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가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되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없습니다!!!

권: 힘들다고 중간에 멈춰 버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데요,,ㅎ

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공무팀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문: 할말이 머 있어잉~~,,당신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 그냥~~^^



인터뷰 내내 구수한 말투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주신 문필권 부장님 감사합니다~~
인기의 척도는 술 한잔 요청의 건수와 비례한다시는 부장님!!
다음엔 땀방울이 아닌 땀방울로 찾아뵙겠습니다~~^^

중국 여행의 설렘, 만남, 그리고 추억

- 기획팀 정형석 -

2011년 04월 06일(수) 아침 화창한 봄 햇살을 받으며, 난 지금 김해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

먼 옛적, 설렘에 잠 못 이루는 수학여행을 하루 앞 둔 학창시절의 나로 돌아가 있는 듯 하다.



북한 한정식과 냉면, 그리고 공연을 볼 수 있는 평양 **옥류관**.
직원은 북한 엘리트 집단에서 선출된 대졸 출신의 미모 여성이다.
(직원에게 사상, 김정일 이야기는 자제하기!!)



만리장성.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한국에선 짧은 시간에 깊은 연을 맺는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중국에선 다신 돌아오지 못하는 생이별을 의미한다.
만리장성 부역은 곧 죽음에서 유래됨^^

천안문의 다섯문중, **중양문**은 황제만 다니는 문으로 황후는 일생에 단 한번 황제와 결혼 할 때 지날 수 있었다.
일례로 여황제인 서태후는 여자이면서 후궁출신이라 평생 단 한번도 다닐 수 없었다고 한다.



금면왕조. 고대전설을 뮤지컬화하여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때 공연한 것을 상품화하여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다.
스케일, 흥수 묘사 등에서 압권이었다.
(여성에게는 금면왕조를 추천, 남성에게는 기예단공연을 추천하고 싶다.)



명조와 청조의 궁궐이자 세계최대궁궐인 **자금성**.(금지된 붉은 성) 황제가 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 올 수 없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다. 살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 궁내에는 수목을 전혀 심지 않았다.

① 파파라치 K



30분 넘게 경기가 지속되면
힘들고 지칠 텐데,,
팀을 위해 몸 사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는 그대!!
멋집니다~~^^*



② 어울림 가족

- 영업팀 김현지 주임 -



- 영업팀 김현지 주임의 막내 동생
"김난냐" 군을 소개합니다.

" 새침, 익살, 애교, 껌썩 등 수 만 가지의 모습으로 나의 혼을 속 빼놓은 우리 난냐!!~
많이 사랑해^^*"

함께 사보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다면 더 알찬 사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사보 참여방법 : 1.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2. 기사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 3. 사보에 직접 출연한다.
- 4. 소정의 선물을 받는다.

* 사보 문의처 : 관리팀 권정은 (bizadmin@cape.co.kr / 370-1233)